

會館세워科學人의宿願이취

全國에 組織網 形成코 새마을 技術支援 活動 科技總, 科技用語制定등 業績多大

- ...이제 多事多難했던 甲寅(74)의...
- ...한해도 기울었다.○
- ...지난 한해도 急變하는 世界情勢 속에서...
- ...科學韓國의 기틀을 마련키 爲한 科學技術界...
- ...의 努力은 끊임없이 展開됐었다.○
- ...그 보람은 여러면에서 많은 變化를 가져왔으며 發展...
- ...向上을 이루었다.○
- ...우리나라 全體科學技術人의 宿願中에 하나였던 매머...
- ...드科學技術會館이 建立되어 科學技術人의 總和...
- ...의 堡壘로 등장 國家發展에 寄與하게 됐다.....○
- ...科技總의 숨가쁜 한해를 마무리해서 學...
- ...會活動의 支援事業을 비롯 研究調查...
- ...事業, 새마을技術奉仕事業 등...
- ...의 功過를 살펴본다.○

메머드會館 建立코 入住

75年엔 會員團體거의 入住可能

全科學技術人의 宿願事業으로 建立 推進한 科學技術會館(城東區驛三洞山 76~561)이 完工을 앞두고 內裝工事(4층까지 완료)에 盡力하고 있다.

內裝工事が 完了된 4층이하에는 지난 7月 1日 韓國科學技術團體綿聯合會(1층)事務局이 移轉함에 따라 韓國石油產業開發센터(P. I. D. 理事長·金東一)와 韓國農工學會(會長·朴成宇)가 2층에 入住했다.

또 새로 發足된 天文臺本部가 入住해서 執務中이며 來年初에 入住할 會員學會가 入住신청을 해오고 있다.

坵地 2,500坪에 연건평 2,037坪으로 세워진

이 科學技術會館은 名實共히 韓國科學技術振興을 爲해서 全科學人의 總和와 產學紐帶를 強化하고 科學技術의 신속한 情報交流를 촉진하므로써 國家發展에 寄與할 수 있는 堡壘가 될 것으로 믿어진다.

實効性거둔 學術活動 지원

科學技術綜合심포지움도 開催

學會의 건전한 發展을 支援하고 國民生活의 科學化 運動을 展開하여 農漁村 近代化 事業을 벌여온 科技總은 今年들어 57個學會에 總 1천 2백만원을 交付. 學會誌發刊등 學會活動을 도왔다.

74年度 學會補助金 支援現況을 살펴보면 昨年度의 事例에 따라 支援等級을 A, B, C, 로 區分 補助金を 지급하였는데

◇ A級—13個學會에 學會誌發刊補助費 4백 4십만원과 學術發表會補助費 1백 5만원, 國際會費補助 2십 1만원을 포함하여 總 5백 6십 6만원.

◇ B級—19個學會에 學會誌發刊補助費 3백 3십만원, 學術發表會補助費, 6십만원, 國際會費 2십 4만원.

◇ C級—22個學會에는 學會誌發刊補助費만 2십 2만원을 政府의 補助金으로 支援했다.

이에 따라 57個學會에서 發刊한 學會誌 總 99회가 발간되어 學會活動의 活潑한 進展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난해의 活動中 國內外間에서 關心을 끈 것은 「科學技術綜合 심포지움」이었다.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와 在美韓國科學技術者協會가 共同으로 主催한 「심포지움」에는 國內 5백여 科學人과 在美 韓國科學者 144名(가족 포함 224名 來韓)이 參加하여 洪陵 글짜기를 메웠으며, 在美韓國科學者들의 國內重要産業 視察하는 등 國內 實情을 알아보고 支援할 수 있는 좋은 機會가 마련되었 다고 하겠다.

科技用語制定 및 統一標準化

24個 分野의 8만 3천 單語

해방후 오늘까지 속제로 남겨졌던 科學技術用語制定事業을 벌려, 昨年度에 「生活技術用語集」을 發刊한 이후 今年에는 農水産, 家政, 藥學, 기타분야의 科學技術用語制定 및 用語統一標準化事業을 完成시켰다.

總 8만 3천 單語에 達하는 이 分野의 科學技術用語制定 및 統一標準化事業은 總 21회의 科學技術用語分科委員會(委員長·沈鍾燮)를 거쳐 最終機關인 審議委員會(委員長·金允基, 副委員長·崔奎奭)에서 論議결정된 것이다.

이 制定用語의 比率을 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사용 용어수—32, 415

계속사용 용어수—27, 445 —84. 6%

개정한 용어수—4, 547 —14%

신규제정 용어수—51, 829 —159. 9%

또한 輸出産業技術實態 調查事業(貿易協會支

援)을 벌려 34個 輸出業體에 對한 脆弱性을 지적하고 그 改善方案을 提示했다.

이 事業은 2次(40日間)에 걸친 18個業種(염색 금형, 도금포장 인쇄, 제본, 골판지, 코타프르지, 타일도자기, 예자, 가성소다, 황산, 면직견직기스핀들, 분무기, 양수기, 경운기, 주물, 면제품, 합성제품, 메리야스, 양말등)에 대한 調査로서 技術上의 問題點을 파헤치고 그에 對한 改善策을 한것이다.

새마을 운동 지원 立體化

8個道에 組織網을 形成

새마을 運動에 科學技術人이 參與하여 科學技術支援으로 80年代의 1人當 國民所得 1, 000弗의 目標達成에 이바지 하는데 그 目的이 있는 새마을技術奉仕活動은 서울의 中央本部(科學技術會館內)를 비롯해서 全國 8個道(全北道, 團長·徐廷祥—全北大 교수), 忠南道(團長·姜信業—忠南大 교수), 慶北道(團長·洪鍾旭—慶北大 교수), 京畿道(團長·朴成宇—서울農大 교수), 全南道(團長·崔貞基—全南道 敎育감), 江原道(團長·崔鍾烈—江原大學長), 慶南道(團長·朴琦澤—土木學會慶南支部長), 忠南道(團長·廷圭鑽—忠北大學長)의 地方組織을 完了했다.

農漁村에 새로운 知識과 科學技術을 보급하여 所得增大를 촉진하고 合理的인 生活의 科學化를 이루도록 全力하고 있다.

지난 4月 全北道 새마을技術奉仕團結成을 스타트로 10月 12日 忠北道 새마을技術奉仕團結成을 마지막으로 技術奉仕를 위한 全國의인 基盤이 完全하게 마련된 것이다.

새마을 技術奉仕團의 組織分布現況은 다음과 같다(11月末 現在).

總 1094名의 科學技術人의 參加하여 各道別로 벌린 技術指導現況을 보면 아래 표와 같으며 各分野別活動狀況은 ①農水産分野 80회에 303名이 參加되었고 ② 環境改善分野에 82회에 509名이고 ③ 保健衛生分野에 17回 875名, ④ 새마을工場 29회에 164名, ⑤ 綜合分野 76회에 240名,

새마을 技術奉仕團 組織分布

	고 문	자 위 문 원	단 장	부 단 장	진 문 위 원					단 원	계
					농수산	환경개선	보건위생	중 합	공 장		
中央本部		10	1		15	7	11	10	8		62
京畿道			1		8			2			11
江原道	3	14	1		17	7	5		7	66	120
忠北道	3	9	1	2	20	14	16	14	16	1	96
忠南道			1		11	8	2		11		33
全北道			1		3	3	2	4	6		19
全南道	3	24	1	3	37	13	15		16	3	115
慶北道			1		73	17	32		84		207
慶南道	4	24	1	3	216	37	74		68	4	431
計	13	81	9	8	400	106	157	30	216	74	1094

⑥ 농지개간에 18회 59명이 參加했다.

各 道團別 活動狀況(11. 30 현재)

區分 道別	活 動		비 고	
	횟 수	인 원		
江 原	10	28	새마을 9회	공장 1회
京 畿	44	91	" 43	" 1
忠 北	15	232	" 11	" 4
忠 南	32	77	" 30	" 2
全 北	27	28	" 14	" 13
全 南	132	1,680	" 132	"
慶 北	27	53	" 20	" 7
慶 南	15	42	" 14	" 1
計	302	2,231		

또 農水産 및 工業, 保健衛生, 生活科學 綜合 등 5個 專門分野構成되어 活動하고 있는 봉사단은 今年에 새마을 技術敎本(4·6배판) 3천부를 發刊. 보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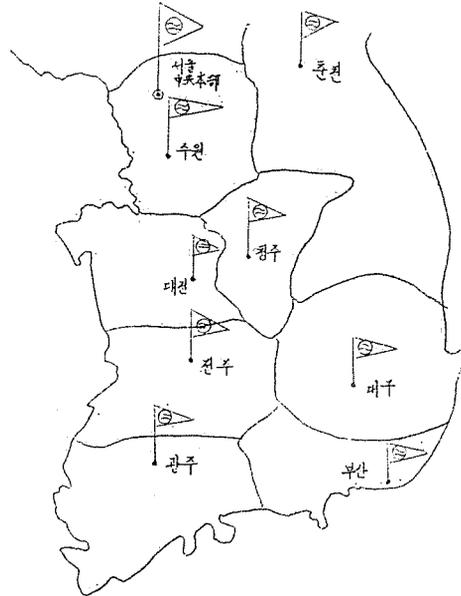
뿐만 아니라 새마을기술봉사단은 放送과 新聞 雜誌를 통한 기술지도를 매년 實施하여 크게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 今年들어 K.B.S 방송에 23 9회(11末 現在), 新聞을 통한 기술지도로 서울 신문, 新亞日報, 月刊새마을, 주간새마을에 도합 123건(11末 現在) 게재 지도해 왔다.

또 書信지도와 現地技術指導등 圓滑한 奉仕活動을 벌려온 기술봉사단은 各地方의 農漁村들로부터 점차 人氣를 모으고 있다.

새마을기술봉사단은 이 외에도 1科學技術人 1 마을技術結線運動을 展開하기 爲한 方針을 세워

13個 學會團體 및 8個道團의 管内 學識단체의 團員들에 대한 參加 의사를 타진중에 있다.

이 事業은 示範的으로 1次 150個 마을에 技術 結線을 實施할 계획으로 추천서를 접수하고 있다.



會誌 發刊 事業

國內外 科學技術界의 動向과 研究團體, 學會, 事業界의 現況을 紹介하고 研究活動의 推進 및 産學協同, 國民生活의 科學化風土造成 등의 橋梁役割을 해오고 있다.

이 月刊『科學과 技術』誌는 各種研究團體 및 學會, 研究機關과 各道새마을기술봉사단원에 配布하고 있다.